

고흥교육청, 단위학교 학부모동아리 적극 지원

학부모 재능 발굴·소통·공감활동 역량 향상

학부모동아리·학부모연합회 동아리 활동 지원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부모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단위학교 학부모동아리 10개 팀과 학부모연합회 동아리 1~2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과 학부모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재능 발굴과 소통, 공감활동으로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어 고흥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푸른꿈 유치원의 '그림책놀이' 동아리를 비롯한 저학년 대상 '책 읽어드는 MOM', '우쿨렐라동아리', '우리말 배우기 동아리', '통합학급학생과 함께하는 손뜨개동아리' 등 단위 학교별 다양한 주제와 관심 분야의 유·초·중·고 학부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대상 진로, 진학 멘토링 및 사례를 공유하고 지피지기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고흥학부모연합회 1기 학부모진로

코칭 지원단 양성과정'과 내고장 쌀로 건강한 떡을 만들어 학생대상 재능기부 수업을 계획 중인 고흥학부모연합회 2기의 '건강하고 예쁜 떡 만들기' 동아리는 다음달 11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는 떡케익 증정도 할 예정이다.

동아리에 참석한 고흥학부모연합회 학부모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고3 수험생에게 우리지역 고흥 쌀로 만든 건강한 떡케익을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동아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습과 연습으로 역량을 강화해 희망하는 학급을 직접 찾아가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며 참가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김정희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고 나눔과 배려의 교육문화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 이에 고흥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부모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공공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강연

담양공공도서관은 지난 15일 영화 유튜브 라이너를 초청하여 퇴근길 인문학 아홉 번째 강연회를 열었다. 학생과 지역주민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관에서 만난 철학자'를 주제로 인문학적 해석으로 영화를 더욱 깊게 바라보는 법에 대해 강연하여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여한 수강생은 "영화 어벤져스, 아이언맨 등을 고대 그리스 비극과 연관하여 바라보는 것을 보고, 생활 속 모든 활동이 인문학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인문학적 사고를 해보아야겠다."라고 말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퇴근길 인문학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3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서관(☎383-7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국악의 명문 진도국악고등학교 '도약의 해' 준비

천재교육 장학금 등 '국악인 육성'...오늘부터 신입생 모집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에 소재한 진도국악고등학교는 참되고 실력 있는 국악인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다. 대한민국 국악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진도국악고등학교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 분야는 기악(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타악(연희, 장단)) 성악(판소리, 가야금병창), 국악작곡, 국악이론, 한국무용이다. 지원자격은 전국의 중학교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로 실기시험 및 면접은 10월 28

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이다.

이 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립국악고등학교로 그 명색을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으로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국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여러 이유들이 신입생 유치를 가로막았지만 교사, 학생 구분 없이 학교의 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이길 수 없었다.

전국 2,900여 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친 신입생 입학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남 257개 중학교에 손수 작성한 편지와 함께 모집요강을 보냈다. 또한 '모교 방문 체험학습'을 통해 재학생이 출신 중학교를 직접 방문 학교를 소개하는 열정도 보였다. 더불어 KBS 광주방송 열린마당의 '우리동네홍부자', '헬로TV뉴스' 등 각종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국에 현수막을 부착

하여 신입생 유치를 위해 전국에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물론 모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다양화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에 앞장 서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직무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 교직원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인성 중심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사제동행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자치회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과 교사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민주시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특히 송재홍 교감은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조경과 실내 환경을 개선해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왔다.

이 학교 학생들의 강점은 장학금으로 천재교육장학금, BTS지민 장학금, 삼성재단 장학금,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롯데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외에도 진도군 사회단체 및 지역민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 시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업료나 급식비를 면제받는 등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교육청, 마인크래프트

기반 메타버스 교사 교육 실시



장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초·중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기반 메타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11월까지 총 4회(8시간) 진행되는데 마인 크래프트, 타다 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현실 속에서 미래의 장흥의 모습을 상상하여 설계하고, 이를 E2메이커 교육을 통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제작·발표하는 학생동아리 교육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우리가 만드는 장흥의 랜드마크'를 주제로 창의융합 미래 공간 설계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8개의 동아리를 공모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미래공간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피지컬 센서를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실물로 구현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장흥초 교사 현 OO는 "게임으로만 알려진 마인 크래프트를 활용한 블록코딩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구조물을 직접 설계하는 등 교육용 에디션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진행되는 3D프린팅을 위한 타다 크래프트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메이커 코딩교구인 E2메이커 연수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교육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메타버스 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메타버스 생산자,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적극 수용하고, 학생·교사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장흥=김도영 기자

여수영재교육원

산출물 발표 개최

여수영재교육원은 9월 16일, 10월 12일, 13일, 3일에 걸쳐 영재교육원 자연영역(초등 5-6학년, 중등) 재원생 112명(24팀)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및 영재교육원 다목적실에서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산출물 발표회는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 학년별·학교급별 소그룹으로 날짜를 달리하였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발표 시간 내에 팀별 탐구 과정 및 결과를 발표하고 궁금한 점은 서로 질의·응답하는 등 열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산출물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 사고를 비롯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수=오상호 기자

